

KBS 일일연속극 <당신이 그리워질 때>

“내 얘기 같다”

젊은 시어머니들 공감

KBS 일일 연속극 <당신이 그리워질 때>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안방극장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신이...>는 고부 3대간의 갈등과 화해를 기동줄거리로 하고 있다. 일혼살의 시할머니, 50줄에 들어선 시어머니,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20대의 신세대 며느리가 그 주인공. 아내에게는 완고하면서 며느리에게는 그지없이 너그러운 시아버지, 자기중심적이며 다소 덜 떨어진 듯한(?) 젊은 남편도 중요한 몫을 한다.

드라마의 고부 간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여성들

‘도덕 교과서’처럼 뻔한 결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많은 여성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현선 씨(월간 리크루트 기자, 26세)는 “등장인물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말한다. 드라마의 중심 축인 50대의 시어머니와 20대의 직장여성인 며느리의 처지가 그만큼 공감이 가도록 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드라마 속의 시어머니처럼 맞벌이 하는 며느리를 둔 이정에 씨(55세)는 “차마 입으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가슴 속에 겹겹이 쌓아두고 있던



많은 여성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당신이 그리워질 때>의 한 장면

평소의 불만들이 극중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쏟아져나오는 것을 들으며 속 시원함을 느낀다”고 한다. 고루한 늙은이란 소리가 듣기 싫어 단 한번도 가족들에게 일하는 며느리 둔 시어머니의 속상함을 털어놓지 못했다는 이 씨는 <당신이...> 방영시간이 되면 되도록 가족들과 함께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으로 자신의 심정을 간접전달하기도 한다.

“저녁 먹고 설거지가 끝날 때 쯤이면 <당신이...>의 방영시간이 된다. 그래서 거의 빠짐없이 보게 되는데 그 며느리가 겪는 시집에서의 갈등이나 야근 문제, 임신 문제 같은 고충이 남의 일 같지 않다.”

그 자신 맞벌이를 하며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유영선 씨(그림 홍보부, 28세)의

말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며느리만 너무 나쁜 사람으로 그려지는 듯한’ 생각도 자주 든다.

이처럼 중년 여성들은 극중 시어머니인 ‘서 여사’(김윤경 분)를, 젊은 주부들은 며느리인 ‘신이’(박지영 분)를 마음으로 두둔하며 드라마를 보는 동안 그러한 자신의 고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를 은근히 바란다.

“고부 갈등은 구조의 문제” 부각돼야

이들 두 세대의 여성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것이 있다면 50대 여성인 시어머니가 터뜨리는 신세 한탄이다.

여성학자 오숙희 씨는 “우리의 50대 여성은 위아래로

부터 가장 큰 정신적 압력을 받는 세대”라고 말한다. 시부모 중심의 결혼생활을 해 온 그들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바쳤던 것과 같은 예우를 당연히 아들로부터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부부 중심의 것이지 부모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다. 남편과 아들 모두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50대 여성들을 괴롭힌다는 것.

“나 자신 50에 가까운 나이가 되기 때문인지 중년 여성의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50대 여성은 사회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진 첫세대다. 나름대로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젊은 며느리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삶은 커다란 부러움의 대상이다. 요즘 시어머니들의 심정을 되도록 섬세하게 그려내고 싶다.” <당신이...>의 작가 이금림 씨의 말이다. 아울러 50대부터 20대까지의 직장여성 네 명을 등장시킴으로써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묘사하는 것도 드라마의 주요 목적이라 말한다.

이금림 씨는 “한 능력 있는 여성이 사회에서 자기 몫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정에서의 역할을 분담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시어머니야말로

그러한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며 그것은 올바른 자리매김되어진 대기록 제도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드라마를 통해 갈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안정된 역할분담과 화목을 일구는 방법을 그려나가겠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오숙희 씨는 “어차피 제도적 성격을 띤 드라마니 만큼 모든 갈등을 한 개인

의 성격상의 문제로 환원시키기 보다는 현재의 가족 구조가 지닌 모순과 세대 차를 근본적으로 드러내 화해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다.

과연 이 드라마를 통해 고부간의 갈등은 단지 인격의 문제일 뿐이라는 가설을 대신 할만한 ‘신고부학’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이나리 기자>